

유기농업의 선구자, 최병철 목사

손 주 완(목사, 원주 작은예수공동체)

천서리 막국수로 유명한 경기도 여주의 송촌교회 최병철 목사님을 찾아간 것은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모내기를 겨우 마친 5월의 마지막 즈음이었다. 평남 대동군이 고향인 목사님의 가정은 비기독교 집안이었으나 신앙을 갖고 시집오신 어머니로 인해 목사님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동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란 소년 최병철은 순안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순안중학교 재학 중에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였고 미신을 섬기는 큰집을 전도하기 위해 담대하게 백부에게 찾아가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귀신 단지를 모두 철거하는 행동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 일로 인해 큰 집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나가 복을 받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신앙의 소년 최병철

해방 후 북한이 공산화되기 시작하면서 17세에 단신으로 월남을 하게 되었다. 일주일 넘게 밤에만 산을 타고 무사히 가평 인근으로 월남을 하게 되었을 때 폭포 밑에서 돌 위에 무릎을

끓고 서원기도를 하였다. 그때가 1948년 5월 경 이었다. 월남한 소년 최병철은 김구 선생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던 고향교회 전도사님의 서울 자택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광 중학교 5학년에 입학하였다. 당시 11명의 친구들이 의화(義火)신양동지회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한 형제처럼 지냈다. 그들의 기도제목 중 하나가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마다 청소부 일을 하였다. 일본 사람들이 지어 놓은 3층 아파트의 청소를 맡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 사람들이 마구 배설해 놓은 대소변을 직접 손으로 치우면서 가족을 떠나 홀로 월남하여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때가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 당시 소년을 위로해 주었던 성경은 시편 17편 10절이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대광 중학교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신앙적 영향으로 그는 학교 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었다고 한다. 당시 광화문에 있었던 덕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최거덕 목사님(당시 덕수교회 담임목사)은 그를 교회 장로님의 가정애 가정교사로 소개해 주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1950년 5월 대광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학비문제로 결국 목사의 손에 이끌려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의화신양동지회와 농촌운동

신학대학에 다닌지 겨우 1개월이 지난 때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인민군에 강제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선에 나가지 않고 식당관리 병사로 근무하던 중 기회를 잡아 탈출하여 학도병으로 국군에 자원입대를 하였다. 9·28수복 후 북으로 진군하던 국군을 따라 고향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만났으나 결국 1·4후퇴의 와중에 가족을 잃

어 버리고 또 다시 혼자가 되어 서울에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 신학대학이 부산에서 개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학교생활을 하여 3학년까지 수료하였으나 교계분열의 현실을 보고 한국신학대학을 중퇴하고 일반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로 대광학교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았었다. 당시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고등부 지도자로 봉사하였고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 결혼도 하게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중에 의화신앙동지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신앙적 약속에 의해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운동을 하자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고 서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제일 먼저 농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경기도 소사(지금은 시흥시 과림동)에서 고등공민학교(현재의 과림중학교의 전신)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교장으로 활동하다가 그 지역이 도시화되자 당시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되고 변두리였던 양평군 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당시의 최병철 선생은 교육사업을 통해 농촌운동에 헌신하였다. 기도의 결실로 10만평의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1군사령관을 만나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드디어 의화농림기술학교(양동역 뒤편)를 세우게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고 150 여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은 큰 보람이었다. 농촌에 버려진 아이들, 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의화농림기술학교는 희망이었다. 그들이 나중에 교계와 사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유기농업을 위한 헌신

그 후 최병철 선생은 1970년 정부의 중공업진흥정책으로 인해 농림기술학교 학생이 거의 없게 되자 학교가 폐교되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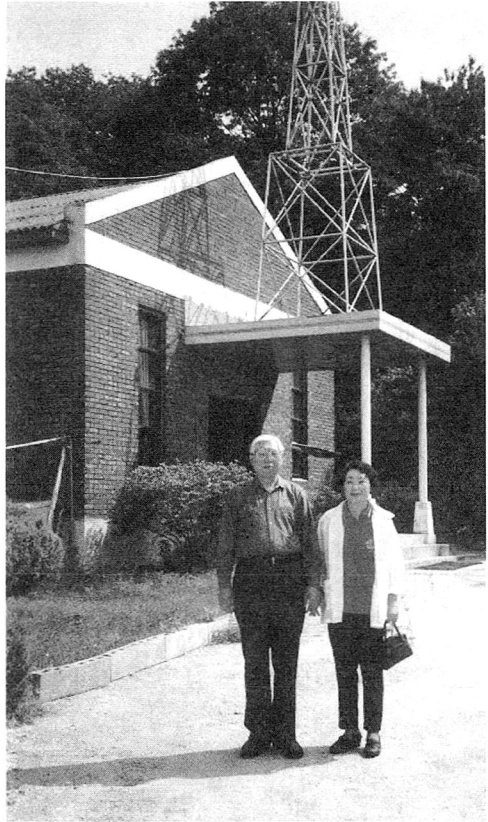
북해도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일본에서 8년 동안 농촌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도중에 이스라엘에서 농촌지도자 훈련코스를 이수하기도 하였다. 1978년도에 귀국하여 농촌이 이농(離農)으로 점차 쇠퇴하는 현실을 보면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유기농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한국 신학대학에 복학하여 졸업했으며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유기농운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전체 농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한국 유기농업 생산 소비자단체연합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아세아 연합신학 대학의 생활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생활관과 식당에서 획기적인 혁신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 목회자들을 위한 농촌교회 진흥원을 이끌기도 하였다. 교계에서는 장석교회 장로로서 노회 농촌부장, 총회 농어촌부 서기, 농촌선교문제 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교육하였고 초창기 한국의 유기농업 정착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였다.

당시 도시교회의 농촌교회 지원이 소액, 다수인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일대일의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교계 신문과 잡지에 수 차례 기고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회 농어촌부가 정책적으로 농촌교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초교과적 기구인 아세아 농촌선교협회에서 10년 동안 총무로 일하면서 농촌선교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사망 후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던 일이다. 유기농업이 국가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정부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하여 농림부의 유기농업 기획단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1991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기농업학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일하면서 불모지라도 같았던 한국의 유기농업 현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농촌목회자로 헌신하기

그 동안 농촌운동은 많이 했으나 농촌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기 위해 1996년 11월 독립 교회인 송촌교회에 장로로서 시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안수를 받아 지금은 목사로서 5년째 봉사하고 있다. 어려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 동안 농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또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목사로서 봉사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최병철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다.



교회 앞에서 사모님과

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최병철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2-30여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주일학교부터 교회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는 농촌목회는 종합목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에서 결코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실제로 농촌교회에서 목회 하면서 농촌 선교

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을 위한 '새생명 농업학교'를 통해 지역을 유기농화하는데 교회가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다. 한 생명이 소중한 농촌교회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모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결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 “농촌교회는 마치 보초와 같습니다. 즉 최전방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교회는 생색을 내기 위해 일하지 말고 또 교회 성장론에 매이지 말고 농촌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물질과 기도와 인적 자원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혁신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생을 농촌을 위해 일하신 목사님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